

한국 전통 조각보 소재에 따른 배색 연구

이연순⁺ · 이정은^{*}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교수⁺ · 영남대학교 대학원의류패션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Colors According to Korea Tradition Jogak-bo Materials

Youn-Soon Lee⁺ · Jung-Eun Lee^{*}

Prof., Dept. of Clothing & Fashion, Yeungnam University⁺

Ph. D. course, Dept. of Clothing & Fashion, Graduated School, Yeungnam University^{*}

(2009. 3. 23. 접수; 2009. 5. 18. 수정; 2009. 5. 22.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fabrics, colors, and arrangement of color in Jogak-bo which were developed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It is expected that from the analysis of the number, distribution and arrangement of colors of Jogak-bo in the late Chosun we can suggest various color arrangements thoset can be applied to modern fash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number of colors of Jogak-bo according to material, silk fabrics Jogak-bo used a variety of colors whereas hemp fabrics Jogak-bo mostly used one color showing contrast between silk fabrics Jogak-bo and hemp fabrics ones.

Second, as for the distribution of colors of silk Jogak-bo and hemp fabrics ones, warm colors were used most frequently. On the other hand, fewer achromatic colors were used to silk fabrics Jogak-bo, and they were more applied to hemp fabrics Jogak-bo. As for the use of cold colors, fewer cold colors were applied to hemp fabrics Jogak-bo compared to silk fabrics Jogak-bo.

Third, as for the arrangement of colors, various colors were used in silk fabrics Jogak-bo, but a single color or not more than 1 color was applied to hemp fabrics Jogak-bo. It well demonstrates brilliance and glamour of silk Jogak-bo and stability and unity of hemp fabrics Jogak-bo. As for the arrangement of colors of Jogak-bo, most of Jogak-bo showed contrasting colors and shades, and similar colors and shades were hardly found in silk fabrics Jogak-bo whereas they were frequently found in hemp fabrics Jogak-bo.

Key Words: Jogak-bo(조각보), Silk fabrics(견직물), Hemp fabrics(마직물), Arrangement of colors(배색)

Corresponding author ; Youn-Soon Lee

Tel. +82-53-810-2792, Fax. +82-53-810-4684

E-mail : yslee2@ynu.ac.kr

I. 서론

21세기는 문화적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시대이며,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에 부응하는 국가이미지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활발한 상호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통과 의식이 담긴 요소들을 개발하여 자국의 문화를 알릴뿐 만 아니라 이익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¹⁾

색채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감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어떤 물체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색채학자인 체스킨의 ‘형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보다 정신적·이성적이며, 색채에 대한 반응은 감성적이다’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90%의 감성과 10%의 이성에 의해 행동하게 되며²⁾ 색채는 마케팅 측면에서 디자인과 더불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한 배색에 의해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색채는 상품 및 이미지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³⁾. 즉 색채는 배색에 의하여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 이러한 색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패션상품이나 디자인에 응용하면 그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색채 연구 및 현대적 개발은 국제화 시대에 새롭고 차별화된 국가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가치임이 당연하다고 본다.⁴⁾

조각보는 한국 전통문화 가운데에서 단순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기하학적 면구성과 세련된 색상의 조화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고, 조각보에 표현된 색채는 그 당시 배색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민가의 부녀자들의 솜씨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각보의 조형성은 현대 패션에 디자인 요소로 많이 응용되며, 특히 조각보 배색 원리를 이용한 디자인이 현대에 이르기 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조각보의 효용가치와 활용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 및 상품화로써 가치가 있다고 본다⁵⁾. 따라서 의복 등을 만들고 남은 조각 천으

로 제작된 조각보의 배색분석에서 당시 즐겨 사용된 색의 조합, 문화가 반영된 여인들의 미적 감각, 독창성 등을 엿 볼 수 있으며⁶⁾ 나아가 현재 활성화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색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각보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는 노은희(2006)⁷⁾의 전통색이 반영된 조선시대 보자기의 색채분포와 배색구조를 측정한 연구, 이정수(2006)⁸⁾의 조각보를 선, 면, 색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조각보의 구조적 연구, 이종분(1999)⁹⁾의 조각보의 배색효과를 분석하여 전통 색채에 대한 감성적 이미지 제시에 관한 연구 등의 조각보 색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이선화(2004)¹⁰⁾의 문화상품의 패키지 디자인개발을 위한 조각보의 배색에 관한 연구, 이세희(2002)¹¹⁾의 조각보 색채이미지를 응용한 침구디자인, 최윤혜, 은영자(2004)¹²⁾의 한국적 디자인 적용을 위하여 조각보의 색채, 면구성을 응용한 패턴의 감성이미지 및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정미(2006)¹³⁾, 최선미, 양숙향(2007)¹⁴⁾의 조각보의 조형성을 이용한 복식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김소형(2004)¹⁵⁾의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문화상품개발, 김혜란(2007)¹⁶⁾의 조각보기법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등 조각보의 조형성을 활용한 상품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조각보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한 복식디자인 및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와, 조각보의 배색이미지, 디자인 개발을 위한 배색연구 등 소수 보고되고 있으나, 조각보의 소재별 배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최근 국가차원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투자에 대한 노력은 2000년 이후 패션계에서도 나타나 한국 전통 이미지를 현대 패션에 반영하기 시작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상봉, 이영희 디자이너는 한복, 조각보 민화, 한글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그러므로 옛 여인들의 미의식이 담겨있는 조각보 배색분석 결과는 한국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상품구매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것이며 소

비가치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상품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통 조각보의 소재에 따른 배색분석은 오늘날 우리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색 및 배색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며, 또한 색상이 상품구입에 큰 영향을 주며, 패션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색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잘 나타내고 글로벌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여 국가를 홍보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후기 조각보 제작에 사용된 직물을 조사하고, 조각보에 사용된 색 및 배색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조각보 소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배색이 현대 패션상품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색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색채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서구화된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인 조각보의 색채 이미지가 적절히 조화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독창적인 한국적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헌목록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조선후기 조각보 유물이 가장 많이 수록된 도록 및 전시회,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자료

저자(년도)	책명	발행처
온양민속박물관(2007)	여인의 향기	온양민속박물관
허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지수박물관
허동화·김현희(2000)	보자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Claire Robert·김현희(1998)	Rapt in colour 조선시대의 한국의상과 보자기	Powerhouse Museum 한국지수박물관

<표 2> 조사대상 조각보 소재별 현황

소재분류		문헌자료				합	n(%)
		온양민속박물관(2007)	허동화(2004)	허동화·김현희(2000)	Claire Robert·김현희(1998)		
견직물	단	14(9.1%)	10(6.5%)	3(1.9%)	2(1.3%)	29(18.8%)	
	명주	0(0%)	3(1.9%)	8(5.2%)	4(2.6%)	15(9.7%)	
	사	0(0%)	1(0.6%)	6(3.9%)	16(10.5%)	23(15.0%)	
	라	1(0.6%)	1(0.6%)	1(0.6%)	0(0%)	3(1.9%)	
합		15(9.7%)	15(9.7%)	18(11.8%)	22(14.4%)	70(45.6%)	
마직물	모시	19(12.3%)	35(22.7%)	4(2.6%)	8(%)	66(43.2%)	
	삼베	0(0%)	1(0.6%)	0(0%)	2(1.3%)	3(1.9%)	
합		19(12.3%)	36(23.3%)	4(2.6%)	10(%)	69(45.1%)	
면직물		6(3.9%)	5(3.3%)	2(1.3%)	1(0.6%)	14(9.2%)	
전체		40(26.0%)	56(36.2%)	24(15.6%)	35(22.0%)	153(100%)	

2) 조사범위

전통 조각보 소재기명시된 바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전통 직물 소재는 크게 동물성섬유인 견과 모, 식물성섬유인 마와 면직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조각보 직물은 동물성섬유인 견직물 70점, 식물성섬유인 마직물 69점과 면직물 14점으로 총 153점으로 조사되었다. 견직물은 단, 명주, 사, 라가 사용되었고 마직물은 주로 모시가 사용되었으나 면직물의 사용은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면직물을 사용한 조각보 유물의 숫자가 적어서 객관적 근거제시에 부적합하므로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견(70점)과 마직물(69점)을 사용한 조각보 총 139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조각보의 끈, 고리는 모든 조각보에 적용되지 않아서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고, 특히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박쥐매듭과 술은 크기가 작고, 모든 조각보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색상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각천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의 질감과 울창감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2. 분석도구 및 방법

1) 색 수 및 색 분포

조각보의 색 수 및 색 분포 분석은 IRI(Image Research Institute)에서 제시한 Hue-tone color system을 사용하였고,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 무채색의 총 11가지 색상을 분석자

료와 직접적으로 대조하였으며, 육안으로 측색하였다.

2) 배색

조각보 배색 분석은 IRI(Image Research Institute)에서 제시한 Hue-tone 120 color system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제시된 3가지 색상 유형(동일색상, 유사색상, 대조색상)과 3가지 색조 유형(동일색조, 유사색조, 대조색조)을 기준으로 하였고, 하나의 조각보 안에서 여러 가지 색상이 유사와 대조의 배색을 보이면서 혼재되어 있는 것을 ‘혼합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배색분석의 색상 및 색조유형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도구는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의 Hue-tone color system을 사용하였다. 색상유형에서 동일색상은 색상차가 ‘0’인 단일색상이며, 유사색상은 0°~120° 미만 범위의 색상차가 1~7로써 인접색상, 중차색상을 포함하였다. 대조색상은 120° 이상 색상차가 8~12의 배색으로 범위를 설정하였고 대조색상의 범위에서 5색 이상이 존재하며 유사색과 대조색의 혼재되어 있는 것을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색조유형은 유태순 외(2000)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색조, 유사색조, 대조색조로 분류하였다. 혼합형 색조는 4가지 이상의 유사 및 대조색조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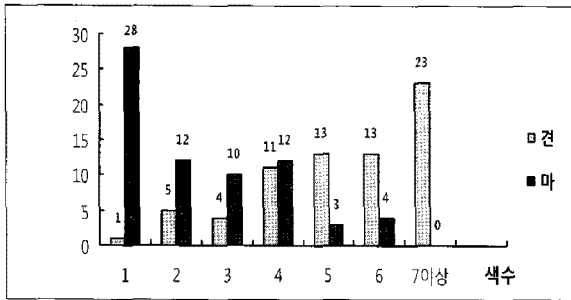
<표 3> 조각보 소재별 색 수

소재 \ 색수	n(%)							
	1	2	3	4	5	6	7 이상	합
견직물	1 (1.4%)	5 (7.1%)	4 (5.7%)	11 (15.7%)	13 (18.6%)	13 (18.6%)	23 (32.9%)	70 (100%)
마직물	28 (40.6%)	12 (17.4%)	10 (14.5%)	12 (17.4%)	3 (4.4%)	4 (5.8%)	0 (0%)	69 (100%)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색 수

조각보 소재에 따라 사용된 색 수에 대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각보 소재별 색 수

견직물 조각보는 마직물 조각보보다 사용된 색의 수가 많게 나타났다. 견직물 조각보에 사용된 색 수는 7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이뤄진 조각보가 23점으로 전체의 32.9%로 가장 많았다. 5색 및 6색의 경우는 각각 13점(18.6%)으로 같았고 4색의 경우 11점(15.7%), 2색은 5점(7.1%), 3색은 4점(5.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가지 색의 사용은 단 1점만 출현하였다. 마직물 조각보에 사용된 색 수는 1가지 색상만 사용된 조각보가 28점으로 전체 40.6%로 가장 많았으며, 2색 및 4색의 사용이 각각 12점(17.4%), 3색의 경우 10점(14.5%), 2~4 색을 사용한 조각보가 대체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5색의 경우 3점(4.4%), 6색의 경우 4점(5.8%)이었고 7색 이상을 사용한 조각보는 없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견직물 조각보는 의복 등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제작하여 색의 구성이 다채롭고 화려한 것이 많으며, 마직물

조각보는 마직물의 수수하고 소박한 특징을 살린, 다소 적은 색을 이용하여도 염색농도에 따라 다양한 농담이 표현된 실용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견직물 조각보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된 마직물 조각보와는 달리 장식용 및 보관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연구의 결과처럼 견직물과 마직물 조각보는 색의 수에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노은희(2006) 연구에서 견직물의 경우 반가에서 혼례시 의복이나 예단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남은 자투리천으로 만든 견직물 조각보는 혼수용품을 덮거나 싸는데 사용되거나 주로 귀중품을 싸서 소장할 때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며 마직물은 자주 빨아서 쓸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평민들의 생활용품에 사용되었으며 상보 등 음식을 싸거나 덮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하여 계층별, 사용 용도에 따라 조각보에 사용된 직물이 달랐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림 1>의 견직물과 마직물 조각보에 사용된 색의 수가 대립적인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색 분포

조각보에 사용된 색을 소재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견직물 조각보는 주로 R(14.5%), Y(13.7%), YR(12.5%)색상의 난색계열(40.7%)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R의 간색인 RP(10.6%)이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난색계열의 색이 많이 사용된 것에 비해 중성색(GY, G, P)이나 한색(BG, B, PB)의 사용이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난색계열의 색상 중에서도 R과 Y색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조각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이 노랑(Y), 빨강(R, YR) 계열이며 가장 적게 사용된 색이 하늘색(BG) 계열이

<표 4> 조각보 소재별 색상 분포

소재 \ 색상												n(%)	
	R	YR	Y	GY	G	BG	B	PB	P	R P	무채색	합	
견직물	60 (14.5)	51 (12.5)	57 (13.7)	23 (5.8)	32 (7.7)	22 (5.3)	25 (6.3)	35 (8.4)	38 (9.2)	44 (10.6)	25 (6.0)	412 (100)	
마직물	26 (15.4)	38 (22.5)	34 (20.1)	7 (4.1)	4 (2.4)	4 (2.4)	5 (2.9)	10 (5.9)	3 (1.8)	4 (2.4)	34 (20.1)	169 (100)	

라는 이정수(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P, PB색상은 난색계열의 색상보다 출현빈도는 적으나 대부분 조각보에 사용된 난색계열과 대조를 이루면서 안정된 배색을 보이며 소량 사용하여 배색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김하나(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견직물 조각보의 서로 대조되는 반대색상의 구성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마직물 조각보에 사용된 색은 YR(22.5%), Y(20.1%), R(15.4%)의 난색계열이 전체의 58.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무채색(20.3%)의 사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직물보다 중성색 및 한색의 사용은 아주 적게 나타났다. 마직물 조각보는 단색을 사용한 것이 많으며 주로 YR, Y색상과 B(검정)색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이세희(2002)의 연구에서 언급한 모시조각보에 주로 사용된 색은 누런색과 검정색이며 모시를 염색할 때 자연이나 생활주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견직물 조각보와 마직물 조각보는 난색계열의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견직물 조각보는 무채색 사용이 낮고(6.0%) 마직물 조각보는 무채색이 많이 사용되었다(20.3%). 또한 한색계열의 사용에 있어 마직물 조각보는 견직물 조각보에 비해 한색

계열(PB: 5.8%, B: 3.5%)색상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색상경향으로 볼 때 견직물 조각보는 주로 사용된 난색계열의 색상 이외의 색상이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었으나 마직물 조각보는 난색계열, 무채색을 제외한 색상의 사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견직물의 경우 직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광택이 있으며 화려한 색채가 특징이고, 마직물은 생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여 염색한 것으로서 한 가지 색으로도 부드럽고 다양한 색조와 풍부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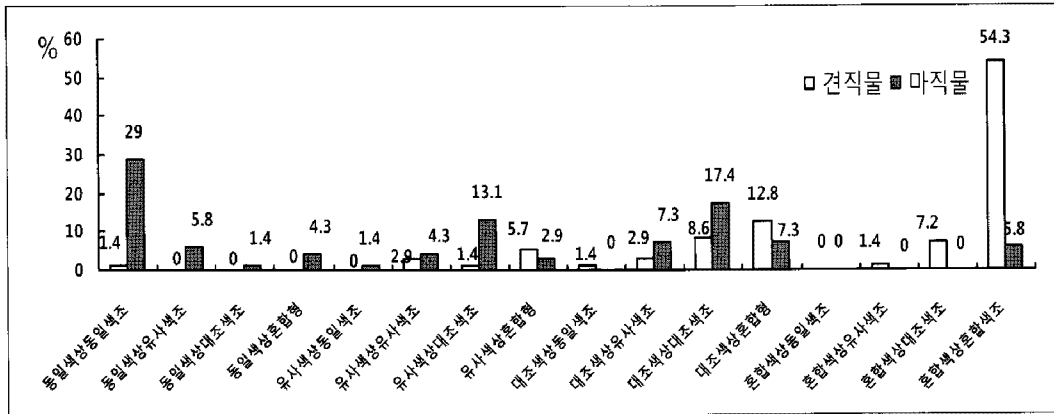
1) 소재별 배색유형 분포

조각보 소재에 따른 배색분석은 색상유형 및 색조유형의 각각 4가지로써 총 16가지의 배색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5> 및 <그림 2>와 같다.

견직물 조각보는 혼합색상 유형이 44점(62.9%)로 가장 많았고, 대조색상 18점(25.7%), 유사색상 7점(10.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동일색상 유형이 1점(1.4%)으로 출현이 미비하였다. 혼합색상 중에서 4가지 색조 이상의 혼합색조가 38점(5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조색

<표 5> 조각보 소재별 배색유형 분포

소재별 색상유형 \ 색조유형		색조유형				합	n(%)
		동일색조	유사색조	대조색조	4색조 이상 혼합형		
견직물	동일색상	1(1.4)	0	0	0	1(1.4%)	
	유사색상	0	2(2.9%)	1(1.4%)	4(5.7%)	7(10.0%)	
	대조색상	1(1.4%)	2(2.9%)	6(8.6%)	9(12.8%)	18(25.7%)	
	5색이상 혼합형	0	1(1.4%)	5(7.2%)	38(54.3%)	44(62.9%)	
	합	2(2.9%)	5(7.2%)	12(17.2%)	51(72.8%)	70(100%)	
마직물	동일색상	20(29.0%)	4(5.8%)	1(1.4%)	3(4.3%)	28(40.6%)	
	유사색상	1(1.4%)	3(4.3%)	9(13.1%)	2(2.9%)	15(21.7%)	
	대조색상	0	5(7.3%)	12(17.4%)	5(7.3%)	22(31.9%)	
	5색이상 혼합형	0	0	0	4(5.8%)	4(5.8%)	
	합	21(30.4%)	12(17.4%)	22(31.9%)	14(20.3%)	69(100%)	



<그림 2> 조각보 소재별 배색유형 분포

상의 4가지 색조 이상의 혼합형 색조가 대조를 이룬 혼합색상이 9점(12.8%)으로 조사되었다. 유사색상은 비교적 적었으나 유사색상에서 4색조의 혼합형이 4점(5.7%)으로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이는 소재별 색 수의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에서 견직물은 부유한 반가의 부녀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색의 천을 구애받지 않고 사용되었으며, 의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의 색상 또한 다양하였기 때문에 견직물 조각보의 색상유형이 혼합색상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직물 조각보는 동일색상 유형이 28점(40.6%)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색상 22점(31.9%), 유사색상 15점(21.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혼합색상 유형이 4점(5.8%)으로 출현이 미비하였다. 동일색상의 유형에서도 동일색조가 20점(29.0%)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색상에서 2~3색조가 대조를 이룬 조각보가 12점(17.4%), 유사색상은 2~3색조가 대조를 보인 조각보가 9점(13.1%)으로 각각의 색상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마직물이 장식용보다 생활용품으로써 실용성을 추구하는 평민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견직물 조각보는 혼합색상 혼합색조(54.3%)의 유형이 가장 많은 반면 동일색상유형은 거의 없었으나 마직물 조각보는 대조색상 대조색조가 21점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색상 동일색조가 20점, 유사색상 대조색조가 1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조색상 대조색조의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동일색상 동일색조의 유형은 견직물은 거의 없는 반면 마직물 조각보

는 대조색상과 유사한 비율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견직물 조각보는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나 마직물 조각보는 단일 색상으로 제작되거나 1~2가지 색에 농담의 변화를 준 조각보 많았고, 특히 견직물과 마직물 조각보에서 보색 및 청·홍의 조화로 대담하고 세련됨을 보여주는 배색도 있어 조선후기 여인들의 독창적인 색의 감각을 엿볼 수 있었다.

2) 소재별 배색유형에 따른 색 분포

조각보 소재별 배색유형에 따른 색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견직물 조각보에서 동일색상은 밝은 색조의 G색상으로 1점으로 조사되었다. 유사색상의 유형은 R(27.3%), YR(20.5%), Y(18.2%)의 난색계열의 색상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R색상의 간색인 RP색상이 18.2%로 사용되었다. 유사색상 유형에 주로 사용된 난색계열의 색은 채도가 중간정도이며 연한 L(Light), 명도와 채도가 낮은 칙칙한 느낌의 Dl(Dull), 어둡고 무거운 느낌 Dk(Dark)의 색조로 표현되었다. 대조색상의 유형은 난색계열인 R(32.7%), Y(28.9%), YR(19.2%)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유사색상 유형과는 달리 PB색상이 21.2%가 사용되었다. 견직물 조각보에서는 난색계열과 청색의 강한 대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오방색인 청색의 선호도는 낮으나 배색에 있어 다른 한색계열의 색들과 사용되어 강한 대비를 보이는 조각보가 많다는 노은희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조색상 유형에 주

〈표 6〉 조각보 소재별 색상유형에 따른 색분포

색상유형 \ 색상		n(%)											
		R	YR	Y	GY	G	BG	B	PB	P	R P	무채색	합
견직물	동일 색상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유사 색상	12 (27.3)	9 (20.5)	8 (18.2)	1 (2.3)	0	0	0	1 (2.3)	4 (9.1)	8 (18.2)	1 (2.3)	44 (100)
	대조 색상	17 (32.7)	10 (19.2)	15 (28.9)	3 (5.7)	0	0	0	11 (21.2)	2 (3.8)	1 (1.9)	1 (1.9)	52 (100)
	혼합형	106 (17.6)	66 (10.9)	120 (19.9)	40 (6.6)	39 (6.5)	28 (4.6)	32 (5.3)	41 (6.8)	41 (6.8)	59 (9.8)	31 (5.2)	603 (100)
마직물	동일 색상	3 (7.0)	10 (23.3)	3 (7.0)	0	0	0	0	0	0	0	27 (62.8)	43 (100)
	유사 색상	15 (19.7)	27 (35.5)	15 (19.7)	0	0	0	0	0	1 (1.50)	1 (1.5)	7 (9.2)	66 (100)
	대조 색상	6 (8.7)	16 (23.2)	19 (27.5)	2 (2.9)	2 (2.9)	1 (1.4)	3 (1.4)	9 (13.1)	1 (1.4)	3 (4.4)	7 (10.1)	69 (100)
	혼합형	9 (13.2)	14 (20.6)	20 (29.4)	5 (7.4)	3 (4.4)	5 (7.4)	3 (4.4)	3 (4.4)	1 (1.5)	1 (1.5)	4 (5.8)	68 (100)

로 사용된 색은 명도가 높은 맑고 아주 연한 느낌의 P(Pale), VP(Very pale)와 채도가 높은 순색인 V(Vivid), 화려하고 강한 느낌 S(Strong), 명도와 채도가 낮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Dp(Deep), Dk(Dark), 채도가 중간정도인 회색가미의 수수한 Lgr(Light graysh)와 칙칙한 느낌의 Dl(Dull) 색조가 각각의 색에서 대조를 보이며 조각보 전체 배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견직물 조각보는 66%가 5가지 이상의 색상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난색계열의 색이 48.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반면 한색계열(BG, B, PB)의 색상 및 선호도가 낮은 녹색계열(GY, G) 색상도 간혹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반가의 의복에 사용되고 남은 천을 활용한 견직물 조각보는 특성상 원색으로 이뤄진 화려함(V, S색조)과 파스텔 색조의 차분한 색조로 제작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의 견직물의 사용으로 혼합형 조각보가 가장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각보가 과학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작자의 미적 감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가지 색을 가진 조각들이 모여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물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직물 조각보의 동일색상 유형은 무채색이 62.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YR(23.3%), Y(7%), R(7%)의 순으로 난색계열이 주로 사용되었다. YR, Y 색상은 채도가 낮은 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동일색상 유형의 조각보는 B색상의 한 가지 색조로 이뤄진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색상은 YR색상이 35.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R 및 Y색상이 각각 19.7%로 나타나 난색계열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무채색의 사용은 9.2%로 분석되어 간혹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성색계열(GY, G) 한색계열(BG, B)의 색상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은희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보자기의 색 분포에서 녹색과 청색계열의 색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일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유사색상에 사용된 색조는 주로 담백하고 수수한 회색조가 가미된 채도가 중간정도인 Lgr, L, Dl색조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명도는 낮으나 채도가 높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Dp, Dk 색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조색상에 사용

된 색은 Y(27.5%), YR(23.2%)의 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PB색상이 13.1%로 색상의 대조를 이루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조색상 유형에서는 동일 및 유사색상 유형과는 달리 중성색계열이나 한색계열 색상이 간혹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조색상에 사용된 색의 색조는 명도는 낮으나 채도가 높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Dp, Dk와 칙칙한 DI과 담백하고 수수한 회색조가 가미된 Lgr, L, Gr 채도가 낮고 연하고 부드러운 색조인 P, VP, ltGy 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조색상 유형의 마직물 조각보는 색상의 대조를 나타낼 뿐 아니라 각각 색상에서 2가지 이상의 대조색조가 사용된 배색이 나타난 결과이다. 5가지 이상이 사용된 혼합색상 유형에서는 난색계열인 Y(29.4%), YR(20.6%), R(13.2%)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중성색계열이나 한색계열은 비슷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색상에 사용된 색조는 채도가 높은 무거운 색조인 Dp, Dk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수수한 색조인 Lgr 및 Gr이 사용되어 높고 낮은 혼합 색조로 나타났다. 한편 S의 선명한 색조의 사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혼합형에서 R색상이 주로 선명한 색조로 많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로 볼 때 마직물을 소재로 한 조각보의 색상은 단색조에 가까운 것이 많았고, 색을 다양하게 쓰기보다 색조에 변화를 준 배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단색의 경우 검정색이 주로 쓰였으며 난색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YR, Y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채도 그라데이션 배색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이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천연염색을 하였고 검정색의 계열은 먹물, 숯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난색계열 색상은 석류, 밤 껍질, 감, 찔레나무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염색한 조각들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이세희(2002)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견직물 조각보는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의 동적인 이미지의 배색 경향이었고, 마직물 조각보는 내추럴하고 차분한 느낌의 정적인 느낌의 배색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공통적으로 오정색인 R과 B색상 선명한 색조를 대담하게 사

용하여 강렬한 대비조화를 이룬 조각보도 간혹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조각보의 세련됨과 전체적인 조화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현대예술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미적 감각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조선후기 조각보 소재에 따른 배색분석을 행하기 위하여 색 수, 색 분포, 배색유형에 대한 배색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에 따른 조각보의 색 수는 견직물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조각보가 많은 반면 마직물은 한 가지 색을 사용한 조각보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 견직물과 마직물 조각보는 색의 사용에서 대조를 보였다.

둘째, 견직물 및 마직물 조각보의 색 분포는 난색계열의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견직물 조각보는 무채색 사용이 적고 마직물 조각보는 무채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한색계열의 사용에 있어 마직물 조각보는 견직물 조각보에 비해 한색계열 색상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색상경향으로 볼 때 견직물 조각보는 주로 사용된 난색계열 색상 이외의 색상이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었으나 마직물 조각보는 난색계열, 무채색을 제외한 색상의 사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견직물의 경우 직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광택이 있으며 화려한 색채가 특징이고, 마직물은 생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여 염색한 것으로써 한 가지 색으로도 부드럽고 다양한 색조와 풍부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견직물 및 마직물 조각보 배색분석에서 견직물 조각보는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나 마직물 조각보는 단일색상으로 제작되거나 1~2가지 색에 농담의 변화를 준 조각보 많았다. 이는 견직물 조각보의 경쾌함과 화려함, 마직물 조각보의 전체적인 안정감과 통일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견직물과 마직물 조각보에서 보색 및 청홍의 조화로 대담하고 세련됨을 보여주는 배색도 있어 조선후기 여인들의 독

창적인 색의 감각을 엿 볼 수 있었다. 배색유형은 전반적으로 대조색상 대조색조의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동일색상 동일색조의 유형은 견직물은 거의 없는 반면 마직물 조각보는 대조색상과 유사한 비율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각보의 세련됨과 전체적인 조화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현대예술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미적 감각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세기 중심에서 국제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문화가 지닌 특성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므로 전통색채를 다양하게 활용한 조각보의 배색을 일반화하여 현대적 변용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시각에서 육안으로 측색한 점과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점에 있어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나 조선후기 조각보 소재에 따른 배색을 분석은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기초가 되는 배색자료 제안 및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독창적인 한국적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소형 (2005).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전통조각보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27.
- 2) 문은배 (2002). *색채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국제, p.20.
- 3) 김하나 (2007).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배색에 관한 연구-19세기 비단조각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28.
- 4) 이선화 (2004). 문화상품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전통색채 연구-조각보의 배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0.
- 5) 김하나 (2007). Op. cit., pp.23-28.
- 6) 이정수 (2006). 조각보의 분석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7.
- 7) 노은희 (2006). 조선시대 보자기의 색채분포와 배색의 측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3.
- 8) 이정수 (2006). Op. cit., pp.1-17.
- 9) 이종분 (1999). 조선시대 조각보의 배색이미지에 대한 감성고찰. *서울디자인포럼학회* 5(2), pp.215~228.
- 10) 이선화 (2004). Op. cit., pp.1-30.
- 11) 이세희 (2002). 한국전통 조각보를 응용한 침구디자인 연구-색채 이미지 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4.
- 12) 최윤희, 은영자 (2004). 전통조각보의 색채, 면구성을 응용한 패턴의 감성이미지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p.266-274.
- 13) 김정미 (2006).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4), pp.507-518.
- 14) 최선미, 양숙향 (2007).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여성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2), pp.145-150.
- 15) 김소형 (2005). Op. cit., pp.23-27.
- 16) 김혜란 (2007). 천연염료와 전통보자기기법의 재해석으로 전개시킨 DTA(Digital Textile Art).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29.
- 17) 김선희 (2005). 천연모시천의 염색과 중첩 효과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0.
- 18) 최윤희, 은영자 (2005). 조각보의 면구성과 색채를 응용한 의복의 감성이미지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pp.135-142.
- 19) 온양민속박물관 (2007). *여인의 향기*. 온양민속박물관. pp.19-120.
- 20) Powerhouse Museum, 한국자수박물관 (1998). *Rapt in colour: 조선시대의 한국의상과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p.50-103.
- 21) 허동화·김현희 (2000). *보자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20-80.
- 22) 허동화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p.47-305.